

# 영한 생번역 사례 분석

## -일반번역과 영상번역의 비교를 통하여-

김 재 원 \*

### 1. 서 론

최근의 외국어 교육은 과거의 문법-번역식 교육(Grammar Translation Method)을 탈피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나 학습자들은 여전히 그 전통적인 교수법의 영향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주어진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라도 문법-번역식 설명이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소재인 '번역'이란 개념도 그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이해될 수 있다. 과거의 번역이 텍스트에 쓰여진 문장 어휘들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 졌다면, 현재의 번역은 그 어휘 자체의 지시적 의미와 더불어 그 단어를 발화하고 있는 화자의 심리 및 여러 가지 사회적 특징, 발화상황 등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의미까지 고려하는 살아있는 번역, 즉 '생번역(生翻譯)'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Robinson(1997: 42-3)이 지적하고 있는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들은 바로 그러한 생번역의 전체 조건들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1)이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2)-(5)를 망라하는 조건이 된다.

- (1) Translation is more about people than about words.
- (2) Translation is more about the jobs people do and the way they see their world than it is about registers<sup>1)</sup> or sign systems.
- (3) Translation is more about the creative imagination than it is about rule-governed text analysis.

---

\*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교수

1) "특정 사회집단에 속한 특정인들에게만 사용되는 어휘들"을 말한다.

(4) The translator is more like an actor or a musician(a performer) than a tape recorder.

(5) The translator, even of highly technical texts, is more like a poet or a novelist than like a machine translation system.

이 논문은 영한 번역<sup>2)</sup> 사례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그 사례들을 ‘일반번역’과 ‘영상번역’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일반번역이란 주로 문어적 번역으로서 주로 텍스트에 쓰여진 글에 대한 번역이며, 영상번역이란 주로 구어적 번역으로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극중인물들이 실제로 하는 말에 대한 번역이 된다<sup>3)</sup>. 이 논문은 번역의 두 극단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일반번역과 영상번역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재 번역의 추세 및 공통적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일반번역 사례 분석

일반번역에서의 번역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현장 교사들이나 번역가들에 의해 사례 분석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는 자주 논의되었던 기존의 사례들을 품사별로 구분하여 번역된 어휘나 표현들의 적절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 2.1 명사(구)

- 사전적(지시적) 의미를 넘어서서 번역해야 하는 경우

When I was at Whooton old Luce used to hate it -- you really could tell he did -- when after he was finished giving this sex talk to a bunch of us in his room we stuck around and chewed the fat by ourselves for a while.

---

2) 출발어(source language)가 영어, 도착어(target language)가 한국어가 되는 번역을 의미함.

3)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대화체 문장과 서술체 문장이 함께 나오는 문학작품에 대한 문학번역은 일반번역과 영상번역의 혼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내가 후튼에 있을 때 루스가 정말 싫어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가 정말 그 걸 싫어 한다는 것은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었다. 그건 그가 자기 방에서 우리에게 음담패설을 다 들려주고 난 다음, 우리들이 좀더 뭉그적거리며 우리 들끼리만 잡담을 나누는 것이었다.)

But the reforms speaks volumes about the changed political situation in Turkey.

(그 개혁은 터어키의 변화된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 추상명사 내지는 무생물 명사가 문장의 주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어 가 부사구나 동사구와 같은 술어로 표현되어야만 자연스러운 번역이 된다.

Inexperience and foolishness cost him his life.

(경험이 부족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잃었다.)

Analysis of over 25,000 men and women who had experienced failure disclosed the fact that lack of decision was near the head of the list of the thirty-one major causes of failure.

(실패를 경험했던 남녀 25,000여명을 분석한 결과 결단력 부족이 31개의 실패 원인들 중에서도 상위에 있는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Experience has taught me to be wary of his approach.

(그런 사람이 접근하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배웠다.)

Cheap labor in emerging economies goes hand in hand with lower productivity.

(신흥경제국의 노동력은 값이 싸지만 그 만큼 생산성도 낮다.)

Overnight a great change came over the weather.

(하룻밤사이엔 날씨는 급변했다.)

## 2.2 형용사(구)

- 사전적(지시적) 의미를 넘어서서 번역해야 하는 경우

He is a heavy father.

(그는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아버지이다.)

As the dealers put their drugs in suitcases full of garlic, agents found the odor overwhelming.

(마약 밀매자들이 마늘을 잔뜩 담은 가방 안에 마약을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단속반원들은 그 냄새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Jimmy Carter is criticizing president Bush's characterization of three countries as an 'axis of evil'. The former president says it is overly simplistic and counterproductive.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세 국가를 가리켜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것을 비판합니다. 이 전직 대통령은 부시가 너무 단순하게 그 말을 하였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 형용사가 부사적으로 번역되어야 하는 경우

The police made a minute examination of the accident.

(경찰은 그 사고를 철저히 검사하였다.)

He gave a sudden chuckle.

(그는 갑자기 낄낄 웃었다.)

One newspaper made a pointed comparison with other events including slavery, the two world wars, and the 1994 genocide in Rwanda in which 800,000 people died.

(어느 신문은 노예제도, 두 차례의 세계대전, 8,000여명의 인명을 앗아간 1994년의 르완다 대량학살 사건들과 빗대어 비교했다.)

"Good morning, sir," said the man, rubbing his hands with invisible soap.

(“어서 오십시오.” 그 사람은 마치 비누로 손을 씻을 때처럼 손을 비비면서 말했다.)

## 2.3 부사

- 사전적(지시적) 의미를 넘어서서 번역해야 하는 경우

Unfortunately, it doesn't work.

(공교롭게도 작동이 안 된다.)

He said rightly that our future depends on our ability to stand alone.

(우리의 미래가 자립 능력에 달려 있다는 그의 말은 옳다.)

He said enthusiastically that he would come along with us.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 그의 태도에는 열의가 배어 있었다.)

She is likely to weep at the news about her country.

(그녀는 고국 소식에 툭하면 운다.)

-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번역해야 하는 부사(구)들

빈도수가 많은 'enough'라는 부사도 반드시 '--할 정도로 충분히'라고 번역 될 필요는 없으며, 'better -- than'도 '--보다 --이 낫다' 라는 표현보다 '--하 느니 차라리 --이 낫다' 라는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다.

The water is good enough to drink.

(그 물은 마셔도 된다.)

He ran fast enough to catch the bus.

(그는 재빨리 달려가 결국 버스를 탔다.)

It is simply better to bring in an outside investigator to go to the bottom of the mess than to spend some part of every week responding to the latest revelation.

(최근 계속되는 폭로에 일일이 대꾸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느니 차라리 외부에서 수사관을 불러들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는 편이 훨씬 마음 음 편한 일이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들도 직역되면 아주 어색한 표현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 '메리를 만나기 전에 나는 서울에 오래 있지 않았다', '내방 맞은 편에서 갑자기 멈춰 설 때까지 그들은 가까이 왔다' 등으로 번역되면 우리말 의미 자체가 불분명하게 된다. 'when'이나 'as soon as' 등의 시간 부사도 반드시 '--했을 때', '--하자마자' 등으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

I hadn't been in Seoul long before I met Mary.

(서울에 살게 되면서 얼마 되지 않아 메리를 만났다.)

They got nearer and nearer until suddenly they stopped  
opposite my room.

(그들은 점점 가까이 오더니 내방 맞은 편에서 갑자기 멈춰 섰다.)

"Now," said the king, when he reached the open lawn, "When  
I blow the whistle -- jump!"

(넓은 잔디밭이 있는 곳까지 오자 임금님은 말했습니다. "자, 내  
가 호각을 불거든 뛰어오르도록 하라!")

## 2.4 동사

- 사전적(지시적) 의미를 넘어서서 번역해야 하는 경우

Here we go.

(시작합니다.)

My father insisted on losing umbrella, drawings and books.

(아버지는 우산과 그림, 책을 수없이 잃어 버리셨다.)

The postmaster understood how much mail meant to a  
soldier's family.

(우체국장은 군 가족들에게 편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다.)

- 자연스러운 표현이 요구되는 경우

He appeared disappointed.

(그는 실망한 기색이었다.)

Exactly how the deal evolved remains unclear.

(그런 거래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Cookware belongs in the kitchen and towels in the bathroom.

(조리기구는 주방이 제자리이고, 수건은 화장실이 제자리이다.)

"What does it feel like?" Micahal wanted to know<sup>4)</sup>.

---

4) 앞의 의문문과 연결해보면 "알고자 했다"보다도 "알고 싶었다"가 더욱 잘 어울린다.

(“어땠어?” 미카엘은 알고 싶었다.)

For a moment she considered, and then she made up her mind<sup>5)</sup>.

(잠깐 생각하고나서 마음을 정했다.)

“I don’t want to scare you,” then he said. “But I can very clearly see you dying nobly, one way or another, for some highly unworthy cause.” He gave me a funny look. “If I write something down for you, will you read it carefully? and keep it?”

(“자네에게 겁줄 생각은 없네.” 이어서 그가 말했다. “하지만 자 네가 별 볼 일 없는 원칙을 위해서 이런저런 식으로 아주 고상한 척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어. 그는 내게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내가 자넬 위해 뭔가를 써주면 주의깊게 읽어보고 간직하겠나?”)

감각동사의 경우도 동사의 의미를 직역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술어의 의미 속으로 포함시켜 표현해야 자연스러운 번역이 된다.

The story sounds true.

그 얘기는 사실로 들린다. -->

그 얘기는 (듣기에) 사실인 것 같다.

This apple tastes sour.

이 사과는 신맛이 난다. --> 이 사과는 (맛이) 시다.

The rose smells fragrant.

장미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 장미는 (냄새가) 향기롭다.

- 의미범주를 좁혀서 번역해야 하는 경우

get, have, do, say 등과 같은 동사들은 대단히 넓은 의미 범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 범주를 좁혀서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주어야 좋은 경우들

5) 이 경우도 앞의 부사구와 연결해보면 “결심하다”보다도 “마음을 정하다”가 더욱 잘 어울린다.

이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say'는 그에 따르는 말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각 다른 적절한 어휘들로 표현되어야만 생생한 번역이 된다(이근달 1999:41).

President Kim Young Sam said he did not recall the exact amount of the 1992 campaign money. Kim said "I did not receive any help from Roh." The president said he will set his primary goals at recovering the national economy and bolstering national security. And Kim said one of the focuses of his economic policy for this year will be on reducing trade deficit.

(김영삼 대통령은 1992년 대선 자금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나는 노 전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요 정책 목표를 경제 회복과 국가 안보 강화에 두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해 경제 정책의 주안점 중의 하나는 무역적자 축소라고 덧붙였다.)

- 시제의 일치를 하지 않아야 좋은 경우

I thought that you were cooking in the kitchen.

나는 당신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

나는 당신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수동태를 능동태로 번역해야 하는 경우

It is said that he would run for president next year.

(들리는 말로는) 그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말해진다. -->

(들리는 말로는) 그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한다.

He had a habit of promising a reward for running his errands but somehow whenever the time for payment

arrived he was never to be found.

그는 발견되지 않았다. -->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The letter was written in red ink.

그 편지는 빨간 잉크로 쓰여져 있었다. -->

그 편지는 빨간 잉크로 써 있었다.

The garbage containers were parked in two places in the city. Every evening, they were moved to the recycling center. The organic waste was thrown into holes in the ground and covered with palm leaves. After two months the waste had been turned into rich fertilizer.

( 시내 두 곳에 쓰레기 컨테이너를 놓아둡니다. 매일 저녁 이 컨테이너들을 재활용 센터로 옮깁니다. 유기 폐기물을 땅 바닥에 판 구멍 속에 넣고 종려 잎으로 덮습니다. 두 달 후엔 이 쓰레기가 비옥한 비료로 변합니다.)

### 3. 영상번역 사례 분석

영상번역에서의 번역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이른바 과거의 문자시대에서 현재의 영상시대로 오면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영상번역은 드라마 극본을 쓰는 것으로서 번역을 한다기보다는 쉬운 말로 글을 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말(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우리말)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과 문화적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여 작중인물의 대사에 담긴 감정을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문학적 재능과 감각 등을 필요로 하게 된다. 여기서는 일반번역과는 구별되는 영상번역 대화체 문장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본 후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다.

#### 3.1 대화체의 특징

영상번역 대사는 우리말의 일상어, 말하자면 극중에서 인물들이 일상생활에

서 주고 받는 대화이기 때문에 대개 간결한 대화체 문장<sup>6)</sup>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영상번역 대사는 일반번역의 경우처럼 문법이나 어순 등을 엄격하게 따르지는 않게 되는데, 화면 자막의 한계 및 극중 인물의 자연스러운 감정 전달 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다(황선길 1999:29-49).

- (1) 조사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생략된다. '황무지가 옥토로 변했어', '너는 모르지만' 등에서는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는 거의 생략된다.
  - 식사가 나왔어요 > 식사 나왔어요
  - 문을 닫아 > 문 닫아
  - 모두가 살았어 > 모두 살았어
  - 어머니가 쓰신 편지 > 어머님 편지
- (2) 대화체에서는 시제의 일치가 중요하지 않으며, 과거시제나 미래시제 등도 대부분 현재시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 다 알았어 > 다 알아
  - 난 네가 하라는 대로 해왔잖아 > 난 네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
  - 그 사람 죽어가고 있어 > 죽을 것 같아
  - 나 같거야 > 나 간다
- (3) 태(態)도 가급적 자연스럽게 표현한다<sup>7)</sup>.
  - 소개시켜 주겠다 > 소개하겠다
  - 조상의 손으로 만들어진 청자 > 조상의 손으로 만든 청자
  - 생각됩니다 > 생각합니다
  -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 없어요
- (4) 인물의 표정에 맞추어 가급적 주관적 표현을 한다<sup>8)</sup>.
  - 솔직히 말해 줘 > 솔직히 말해
  - 오빠가 같이 놀아줄까? > 오빠하고 같이 놀까?

---

6) 자막처리에는 빈 칸까지 계산하여 한 줄 13자 이하, 두줄 이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다.

7) 이는 일반번역에서의 경우와 동일하다.

8) 이는 작중 인물의 감정전달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이다.

- (5) 주어는 대개 생략한다.  
 - 나 당신을 사랑해요 > 사랑해요  
 - 너 어디 갔었니 > 어디 갔었니?
- (6) 주어와 술어를 가까이 둔다.  
 - 철수는 결혼이 가까워져서 신경이 날카로워 > 결혼이 가까워져서 철수는 신경이 날카로워
- (7) 어순도 가급적 대화체로 자연스럽게 처리한다.  
 - 그 철수라는 애, 나쁜 놈이에요. > 나쁜 놈이에요, 그 철수라는 애.
- (8) 3인칭 지시대명사는 가급적 보통명사로 표현한다.  
 - 전쟁 때 그녀를 만났소 > 전쟁 때 그 여자를 만났소.  
 - 저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 저는 함덕에서 자랐습니다.
- (9) 긴 대사는 둘로 나눈다.  
 -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기 때문에 밀린 숙제하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 밀린 숙제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곧 방학이 끝나거든요.
- (10) 접속어미도 자연스럽게 처리한다.  
 오늘도 해가 떴으니까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 오늘도 해가 떴다. 그리고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 (11) 어휘 선택은 정확하고 간결한 어휘로 호응시킨다.  
섬세한 나는 너무도 충격을 받아서 --> 예민한  
 또 위반한 게 있어요 --> 어긴 게  
 향기도 무척 좋다 --> 정말  
마지막에 하려고 > 나중에

### 3.2 사례 분석

간결한 대화체 문장으로 영상번역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극중 인물들의 성격이나 특징,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점들도 번역 안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여기서는 극중인물들의 사회적 특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발화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sup>9)</sup>, 음운적 요소들을 맞추어야 하는 경우로 구분

9) Language varies not only according to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speaker(such as his social class, ethnic group, age and sex) but also according to the social context in which he finds himself(Trudgill 1975:103).

하여 간략하게 사례를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

### 3.2.1 극중인물들의 사회적 특징들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극중 인물의 사회적 특징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인종(ethnic group), 사회 계층(social class), 성(gender), 연령(age) 등인데, 이 가운데 영한 번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예가 흑인노예의 어법과 어투이다. 아래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어법과 어투는 그에 상응되는 표준영어와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번역도 반드시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다.

"Honey, you kain fool me. Ah knows you. An' seed Mist' Frank's face jes' now an' Ah seed yo' face, an' Ah kin read yo' mine lak a pahson read a Bible. An' Ah heerd dat whisperin' you wuz givin' him 'bout Miss Suellen. Effen Ah'd had a notion 'twuz Mist' Frank you wuz affer, Ah'd stayed home whar Ah b'longs."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35장 중에서)

("Honey, you can't fool me. I know you. And I saw Mister Frank's face just now and I saw your face, and I can read your mind like a person reading his Bible. And I heard that whispering you are giving him about Miss Suellen. If I'd had a notion it was Mister Frank you were after, I'd stayed home where I belong.")

안정효(1996:65-66)는 당시의 흑인들이 대부분 아프리카 태생이면서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들이고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흑인들의 문체를 나름대로 고안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아씨 나 못 속여요. 나 아씨 어떤지 잘 알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 나 프랭크 선생님 얼굴 봤고 지금 나 아씨 얼굴 봤고 나 목사님 성경 환히 아는 것 마찬가지 아씨 마음 속 환히 알아요. 그리고 나 미스 수엘런 얘기 아씨하고 선생님

하고 수군수군 들었어요. 아씨 마음 든 사람 프랭크 선생님이다 생각 알았으면 그냥 나 집 암전히 있었어요.”

다음에는 극중인물이 젊은 부부인 경우를 보자. 영화 “사랑과 영혼(Ghost)”에서 남편 Sam과 아내 Molly는 평소 가까운 친구들간의 격의 없는 말투를 쓴다. 그러나 영한 영상번역의 경우, 가끔 진지한 대화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아내의 말투는 자연스럽게 약간 높임 말투로 전환되는 게 자연스럽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대사만으로는 두 사람이 모두 남자이거나 여자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Molly 대사 번역에 사용된 “--요”체는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화체라고 볼 수 있다.

Molly: Are you OK? (기분이 어때요?)

Sam: Mm-mmm. I'm fine. (괜찮아.)

Molly: What's the matter? (무슨 일 있어요?)

Sam: Nothing. (아니.)

Molly: You worried about the promotion? (승진 문제 걱정해요?)

Sam: No, not really. (아냐.)

Molly: Then what? (그럼 뭐죠?)

Is it moving in together? (동거를 시작하게 된 것 때문이에요?)

Sam: No.(아냐.)

극중 인물이 아동인 경우에도 아동의 말투로 번역을 해야 한다. 영화 “닥터 지바고”에서 Yuri가 어머니의 유품 바이올린을 가르키면서 하는 말 “That's mother's.”는 역시 아동 말투인 “그건 엄마 거예요.” 정도가 무난할 것이다.

Gromeko: Will you lie down then, Yuri?

Your Mummy and I were great, great friends, you know. Now we are going to look after you.

Yuri: Thank you.

That's mother's. (그건 엄마 거예요.)

Alex: It's your's now.

Gromeko: Yes, Yuri. Mummy left it to you.

Yuri: In her will.

영화 “크로커다일 던디”에서 주인공 Dundy는 호주 시골의 무식한 사냥꾼 출신이었는데, 이러한 그의 사회적 특징들을 감안하여 번역가는 극중에서 그가 하는 말 “Don’t worry.”를 평범하게 “걱정하지마” 등으로 번역하지 않고 “염려 붙들어 매더라고”라고 재미있게 창조적으로 번역하여 관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던 실례도 있다(조선일보 2000. 11. 13).

Dundy: Don’t worry. (염려 붙들어 매더라고.)

애니메이션 영화인 “The Land Before Time”에서 아기공룡인 Littlefoot의 대사도 아동의 말투로 처리하여 “이건 공정치 못해”, “이건 옳지 않아”라는 표현들보다도 “이건 말도 안돼”로 처리해야 훨씬 실감나는 번역이 된다.

Littlefoot: It’s not fair. (이건 말도 안돼.)

She should have known better.

That was sharptooth.

It’s all her fault.

Rooter: All whose fault?

### 3.2.2 발화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Who’s crying?”은 “누가 우니?”라고 번역될 수 있지만 발화상황에 따라서 “울지마!”라는 명령문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울긴 누가 운다고 그래?”, “도대체 시끄럽게 어떤 자식이 울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영상번역에서는 이러한 발화상황과 대사의 의미를 적절히 연결시키고 있는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사랑과 영혼(Ghost)”과 “닥터 지바고(Dr. Zhivago) 등 몇편의 영화들에 나오는 실례들을 통하여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영화 “사랑과 영혼”에 나오는 대사들 가운데에서 Sam과 Oda Mae가

나누는 대화를 보자. 여기서 'attitude'의 사전적 의미는 "태도"나 "자세"이지만 이 상황에서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불손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Sam: Would you stop rambling? (황설수설 하지마.)

Oda Mae: I'm just answering her question.(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거잖아.)

You've got an attitude now. (불손한데.)

Sam: I don't have an attitude. (불손한 게 아냐.)

Oda Mae: Yes, you do have an attitude. (아냐, 불손해.)

We're having a little discussion. (대화를 하고 있잖아.)

If you didn't have an attitude, (불손한 게 아니라면  
you wouldn't have raised your voice. (언성을 높이지 말았어야지.)

Sam: God damn it, Oda Mae -- (제기랄)

Oda Mae: Don't you God damn me. (욕하지마.)

Don't you take the Lord's name in vain.(하느님 이름 함부로  
빌지 말고.)

아래 예문에서의 'great'의 의미도 앞에 나오는 'fake'의 의미를 감안하여 "감쪽같다"의 의미로 해석되어야만 자연스럽고 적절한 번역이 된다.

Sam: Your fake license is great.

(이 위조 운전 면허증은 감쪽같군.)

그밖에 다음과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도 발화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어휘 선택이 필요하게 된다.

Molly: I want to marry you, Sam.

Sam: What?

Molly: Yep.

I've been thinking about it.

I've been thinking about it a lot,  
and I think we should just do it.

Sam: You're serious. (진심이야?)

Molly: Yeah.

What's that look for? (표정이 왜 그래요?)

Sam: You never wanted to talk about it.

Carl: God, this place looks good.

Molly: Yeah. You like it, huh?

Carl: "Like" is hardly the word. ("좋다"는 말로는 부족해.)

Sam: Somebody else? You're out of your mind.

Oda Mae: I'm getting there fast. (미치려고 해요.)

Sam: I have an idea! (좋은 수가 있어!)

다음에는 영화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대사들 중에서 중년 나이의 Vitor와 젊은 나이의 Pasha가 서로의 나이를 비꼬듯이 의식하면서 심리적 언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사를 보자. 여기서 ‘improve’의 의미는 “철이 들다”로 해석해야 자연스러운 번역이 된다.

Victor: Pavel Pavlovich,  
my chief impression is . . .  
and I mean no offence . . .  
is you're very young.

Pasha: Monsieur Komarovsky,  
I hope I don't offend you.  
Do people improve with age? (나이가 든다고 모두 철이 됩니까?)

Victor: They grow a little more tolerant.

Pasha: Because they have more to tolerate in themselves.  
What do older people bring to their marriage?

그와 마찬가지로 'expensive'의 의미도 아래의 대사에서는 “만나기 힘든”의 의미<sup>10)</sup>로 번역되어야 적절하며,

Madame: I believe he has government connections.

Mother: I don't know, I'm sure.

Madame: Isn't he very expensive? (만나기 힘든 분이잖아요?)

Mother: Monsieur Komarovskiy advises me. Out of kindness, baroness.

He was a friend of my late husband's.

Madame: He advises some very important people.

Mother: Yes, I know.

다음과 같은 대사에서는 Boris가 Zhivago의 지도교수인 점을 생각하여 'hard case'를 “못 말할 친구”로 번역하여 보았다.

Boris: Yes.

Funny thing ...

There's a man, speaks on public platforms, in with the government, in with the liberals, in with everybody, and he risks it all ... For that<sup>11)</sup>!

That's not how poets see them, is it?

That's how GPs see them.

That's how they are.

Zhivago: You know, from here she looks beautiful.

Boris: Zhivago, I think you're a hard case.

(지바고, 자넨 정말 못 말할 친구구만.)

---

10) 우리말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친구”, “잘 만나주지 않는 친구”를 “비싼 친구”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11) 'that'이 가리키는 것은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의 나체이며, 지도교수인 Boris가 제자인 Zhivago에게 그걸 가르키면서 “자네 같은 시인의 눈엔 어떻게 보이는가?”라고 진지하게 묻자 Zhivago는 오히려 능청스럽게 “여기서보니까 더욱 아름다운데요”라고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다.

### 3.2.3 음운적 요소들을 맞추어야 하는 경우

영상번역에서 가장 어렵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바로 음성적 내지는 음운적 요소들을 잘 맞추어 번역해야 하는 경우들이다. 이처럼 음성적, 음운적 고려를 해야 경우들은 한편의 영화나 드라마 대사 안에서 몇 번 나오지 않겠지만, 바로 이 부분에 번역가의 재능과 감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므로 전체적 번역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다.

영혼인 Sam이 'transaction to make'라고 하고 흑인 점술가인 Oda Mae가 그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다가 'transfusion to make'라고 말실수를 하여 관객들에게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이다. 여기서는 'transaction'의 내용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 일이므로 '수취(受取)'라고 하여 '수혈(輸血)'과 음운을 맞추어 보았다.

Sam: Make sure it goes up to the third floor file  
because you have a transaction to make. (수취해야 하니까요.)  
Oda Mae: Make sure this goes to the third floor file.  
I have a transfusion to make. (수혈해야 하니까요.)  
Woman: A what? (뭐라고요?)<sup>12)</sup>

Gromeko가 시위대의 구호인 '형제애와 자유'를 읽어보며 좋은 구호라고 감탄하자 Alex가 옆에서 비아냥거리는 장면인데, 'freedom'과 'fiddlesticks'의 유사한 발음을 감안하여 '자유'와 '자유 나부랭이'라고 맞추어 번역을 하였다.

Gromeko: Brotherhood and freedom  
Yuri, what splendid words.  
Justice, equality, and bread.  
Don't you think they're splendid?  
Zhivago: Yes, I do.  
Gromeko: Brotherhood and freedom. (형제애와 자유)

12) 황당한 표정으로 하는 은행원의 반응임.

Alex: Brotherhood and fiddlesticks! (형제애와 자유 나무쟁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관객들에게 웃음을 자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음운을 맞추어야 하는 경우가 성인영화에서보다도 훨씬 자주 발생한다. 아래 대사는 곤충을 소재로 한 '벅스 라이프(bugs' life)'에 나오는 것인데 "곤충 노릇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라는 직역 의미를 'tough'와 'bug'의 모음[ʌ] 발음의 묘미를 살리기 위하여 "곤충의 고충, 너희는 몰라!"로 바꿔보면 훨씬 더 흥미로움을 실감할 수 있다.

It's tough to be a bug. (곤충의 고충, 너희는 몰라!)

역시 애니메이션 '노틀담의 꼽추'에서는 집시 에스메랄다가 꼽추 콰지모도에 게 "(악덕 심사관인) Prolo가 틀렸어"라고 말하자 귀가 좋지 않은 석조상이 "Prolo는 못생겼어"라는 의미로 대답한다. 여기서는 비슷한 발음인 'wrong'과 'long'이 대구를 이루고 엉뚱한 대답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각각 '틀렸어'와 '틀니 했어'로 하여 대구를 맞추면서 원문에서의 "못생겼다"는 의미도 살린다.

A : Prolo's wrong. (프롤로가 틀렸어.)

B : Prolo's nose is long. (프롤로가 틀니 했어.)

출판인 래리 플랜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래리 플린트'에서 변호사의 질문에 대한 플린트의 엉뚱한 대답을 'aversion'과 'a virgin'이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번역하였다. 직역할 경우 흥미도, 의미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으므로 '불만'을 '불알만'과 맞추면서 "불만"의 의미와 더불어 성적인 의미도 살려내었다.

A: Do you have any aversion to religion? (종교에 불만 있나요?)

B: A virgin? (불알만 있냐구요?)

## 4. 결 론

일반번역과 영상번역 사례 분석을 통하여, 어휘 자체의 지시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단어를 발화하고 있는 극중 인물의 심리 및 사회적 특징들, 발화상황 등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의미까지 실감있게 표현할 수 있는 생번역(生翻譯)의 방법론을 모색하여 보았다. 여기서의 사례 분석 결과를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본다면 현대 번역의 중요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문맥이나 발화상황에 적합한 어휘를 선택하되 가급적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어휘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Robinson(1997:10)이 제시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literalism<sup>13)</sup>보다 fluency<sup>14)</sup>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과거의 번역이 전자를 중시했다면 현재와 미래의 번역은 점점 후자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둘째는 현대 번역의 추세가 저자 중심적 번역에서 점점 독자 중심적 번역으로 가고 있으며, 또 그렇게 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이미 fluency에 대한 정의 속에 함축되어 있거니와 이종인(1998:23)도 다음과 같이 번역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Translate in a way that draws the reader's attention to the sense and substance of the writing, rather than to the mood and temper of the author.

(저자의 분위기나 기질에 영합하기보다는 저서의 의미와 실체에 독자의 주의를 유도하는 그런 번역을 하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여 보자면,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은 1980년대 말

---

13) The translation follows the original word for word, or as close to that ideal as possible. The syntactic structure of the source text is painfully evident in the translation.

14) The translation is so accessible and readable for the target-language reader as to seem like an original in the target language. It never makes the reader stop and reflect that this is in fact a translation.

부터 일기 시작하는 현대 번역의 추세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의 번역이 과학적 객관성 전달을 중시하는 기술주의적 번역(discriptive translation)이었다면, 그 이후의 번역은 감정적 주관성 전달을 중시하는 다문화주의적 번역(multicultural translation)으로서 이 논문에서 정의하여 다루었던 생번역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개는 주업으로보다 부업으로 행하여지는 우리나라의 번역이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역 자체에 대한 연구와 그에 따른 번역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그리하여 번역에 대한 진지한 직업의식이 생겨나게 될 때 비로소 한 단계 진일보된 우수한 번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Robinson, D. 1997. *Becoming a Translator*. London and New York.
- Trudgill, P. 1975. *Sociolinguistics*. Penguin Books.
- 김재현. 1995. 번역의 원리와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
- 안정효. 1996. 안정효의 영어 길들이기. 서울: 현암사.
- 유영난. 1995. 번역이란 무엇인가. 서울: 태학사.
- 이근달. 1998. 영문번역의 노하우. 서울: 시사영어사.
- 이종인. 1998. 전문번역가로 가는 길. 서울: 을파소.
- 지정숙. 1997. 번역의 기초이론. 도서출판 한국번역연구원.
- 한국영상번역가협회(김형욱 김윤정 신영숙). 1999. 영화번역 이야기. 서울: 신론사.
- 황선길. 1999. 문법과괴 영상번역. 서울: 범우사.
- 조선일보. 2000. 11. 13일자.